

‘패배를 잊은’ 이범호호, 선두 굳히기 나선다

16~18일 SSG·19~21일 NC 격돌
지난주 6전 전승...단독 1위 수성
‘0.462’ 김도영 타격감 완벽 부활
백업 홍종표·서건창·한준수 활약
주 2회 대체 선발 가동 극복 관건



지난주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를 상대로 6연승을 달린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단독 선두 굳히기에 들어간다. 이번 주 여섯 경기를 끝으로 9개 구단과 첫 시리즈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 SSG랜더스와 NCC다이노스 모두 가을야구권에 있는 만큼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는 각오다.

KIA는 16일부터 SSG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원정 주중 3연전, 19일부터 NC와 홈주말 3연전을 치른다. 앞서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에 모두 3승씩을 거두며 스위치에 성공한 KIA는 올 시즌 14승 4패(승률 0.778)로 단독 선두에 올라 있다.

지난 한 주는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시간이었다. 지난주 월요일 기준 공동 4위로 가을야구권에 있던 LG와 한화를 상대로 패하지 않았으며 이범호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뒤 처음으로 스위치를 켰었다.

선발진이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다. 제임스 네일이 지난 9일 LG전과 14일 한화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14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시즌 3차전에서 5-2로 승리한 뒤 기쁨을 나누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전까지 처음 두 차례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과 5.2이닝 2실점으로 위력을 과시했다. 월 크로우는 11일 LG전에서 6이닝 2실점(비자책), 윤영철은 12일 한화전에서 5이닝 2실점(1자책점)으로 호투했다.

야수진에서는 김도영의 부활이 반갑다. 지난주 여섯 경기에 선발 출장, 세 차례 홈런포 포함 26타수 12안타 4도루로 9타점과 6득점을 생산했다.

홍종표와 서건창, 한준수 등 백업자원들도 맹활약을 펼쳤다. 박찬호와 박민 등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홍종표가 4경기 14타수 5안타 3타점 2득점, 서건창이 5경기 12타수 4안타 2타점 5득점, 한준수가 5경기 12타수 6안타 4타점 4득점으로

공백을 메웠다.
●16~18일 SSG랜더스전(인천 SSG 랜더스 필드)

SSG는 지난주 4승2패로 6위에서 4위로 점프하며 가을야구권 진입에 성공했다. 안방에서 키움에 2승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긴 뒤 KT와 원정을 떠나 첫 경기를 내주며 연패에 빠졌지만 곧장 연승으로 연속 위닝 시리즈를 챙기는데 성공했다.

KIA는 SSG를 상대로 첫 경기부터 대체 선발을 가동한다. 이의리가 좌측 주권절 굴곡진 염자로 이탈하며 김건국과 크로우, 윤영철이 나선다. 김건국은 올 시즌을 퓨처스리그에서 출발하면서 한차례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1

2024 KBO리그 순위 (15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8	14	4	0	0.778	-
2	NC	19	13	6	0	0.684	1.5
3	키움	17	11	6	0	0.647	2.5
4	SSG	20	12	8	0	0.600	3
5	LG	20	9	10	1	0.474	5.5
	한화	19	9	10	0	0.474	5.5
7	두산	20	9	11	0	0.450	6
8	삼성	19	8	10	1	0.444	6
9	KT	20	5	15	0	0.250	10
10	롯데	18	4	14	0	0.222	10

군에서는 세 차례 구원 등판에서 무실점 경기 없이 4.1이닝 4실점(3자책점)으로 주춤했다.

SSG는 김광현과 로에니스 엘리아스, 로버트 더거가 선발 등판을 준비한다. 지난주 김광현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를 챙겼지만 엘리아스는 6.1이닝 5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더거는 1이닝 4실점으로 두 경기 연속 조기 강판에 평균 자책점은 14.0까지 치솟았다.

SSG의 타선은 막강하다. 지난주 최지훈과 고명준, 최정, 길레르모 에레디아 타격을 이끌었다. 최지훈은 4할의 주간 타율과 함께 5할의 주간 출루율로 맹활약했고 고명준과 최정, 에레디아도 3할7푼을 웃도는 맹타를 선보였다.

●19~21일 NCC다이노스전(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NC 역시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했다. 하지만 KIA에 선두를 내주며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KT와 홈 3연전 첫 경기를 내줬지만 두 경기를 챙기며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고 삼성을 상대로 3연전 두 경기를 먼저 챙기며 4연승과 함께 연속 위닝 시리즈를 쟁겼지만 마지막 경기를 내주며 흐름이 끊겼다.

KIA는 NC를 상대로 9개 구단과 맞대결 첫 바퀴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크다. 올해 우승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첫 만남에서 기선 제압으로 선두 독주 체제를 굳힐 필요가 있다.

KIA는 양현종과 네일에 이어 다시 한번 대체 선발을 투입한다. 시즌 초 순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체 선발이 두 차례 투입되는 만큼 KIA에게는 새로운 고비라고 할 수 있다. 이범호 감독은 대체 선발 후보군을 김건국을 비롯해 황동하와 김사운 등까지 고려하고 있다.

NC는 카일 하트와 이재학, 김시훈이 로테이션을 소화할 순서다. 하트와 김시훈은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으로 나란히 퀄리티스타트를 쟁겼다. 하지만 이재학이 주 2회 등판을 소화하며 5이닝 4실점과 3.1이닝 6실점으로 최악의 흐름에 빠진 상황이다. 이재학은 아직 시즌 첫 승이 없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조직력으로 풀어 나가보겠다”

‘광주오픈 첫 호흡’ 송민규·이재문

지난해부터 테니스 복식 출전
日 히로키-노구치 조와 16강전



송민규(왼쪽)와 이재문

2019년 광주오픈 복식에서 각각 준우승과 8강의 성적을 거뒀던 송민규와 이재문(이상 KDB산업은행)이 다시 뿔고을에 돌아왔다. 5년 만의 광주오픈 복식전에서 발을 맞추게 된 송민규와 이재문은 ‘찰떡 호흡’을 예고했다.

송민규와 이재문은 지난 14일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ATP(프로테니스협회) 광주오픈 챌린저 2024 참가를 앞두고 사전 훈련을 가졌다. 와일드카드 복식 16강에 진출한 이들은 모리야 히로키-리노 노구치(이상 일본) 조와 맞붙는다.

훈련을 마친 직후 인터뷰에 응한 송민규는 “2018년과 2019년 광주오픈에 참가해 우승과 준우승으로 좋은 기억이 있다”며 “광주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더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대회”라고 밝혔다.

이재문 역시 “2018년과 2019년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광주에 왔었다”며 “단식과 복식에 모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주오픈에서는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다. 지난해 6월 ITF(국제테니스연맹) 대구 국제 테니스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한 뒤 챌린저 투어는 지난주 부산오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송민규는 “광주에서 오랜만에 이재문과 호흡을 맞추게 돼 기분이 좋다. 국내 대

회는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난다”며 “홈 코트나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경기를 뛰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문도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 많은 응원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5년 전의 좋았던 기억을 되살려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에게는 이번 광주오픈이 같은 KDB산업은행 소속으로서 호흡을 맞추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함께 복식 경기를 준비하면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송민규는 “같은 팀이지만 복식을 따로 활동했는데 이제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광주오픈에서 와일드카드 좋은 기회를 받은 만큼 준결승을 넘어 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재문 역시 “챌린저 투어에 나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겼다”며 “이왕 대회에 도전하는 김에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높게 잡았다. 민규 형과 조직력을 잘 맞춰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겠다”고 부연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주연, 양구평화컵유도 금빛 매치기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황수련과 이주연이 2024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빛 매치기에 성공했다.

황수련은 15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일반부 -52kg급 결승에서 김지연(동해시청)을 팔가로우워끼기 한판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라겸(포항시청), 정나라(안산시청)를 꺾고 결승에 오른 황수련은 김지연과 지도 1개씩을 주고 받은 뒤 팔가로우워끼기 기술을 성공하며 한판으로 이겼다.

이주연은 같은날 여자일반부 -63kg급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주연은 8강전에서 이지원(부산북구청)을 윗누르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서 김윤(동해시청)을 반칙승으로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주연은 결승에서 채정아(포항시청)를 만나 지도 2개씩을 주고 받은 뒤 안오



2024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 2·동 2개를 획득한 광주교통공사 유도팀과 은 1개를 수확한 조선대 유도팀이 메달을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제공

금매치가 절반을 내주며 패색이 짙었으나 종료 1분을 남기고 지도 1개를 더 따내면서 반칙승으로 우승했다.

광주교통공사는 이날 여일반 -57kg급의 조준수의와 -70kg급의 김혜미가 각각 동

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조선대 배경은은 여대부 -70kg급 결승에서 이예랑(한국체대)에게 맞대리후리기 한판패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고 신명오, 근대5종 亞선수권 단체전 금

강도훈·배준수 등과 합작

‘한국 근대5종 유망주’ 신명오(17·광주체고)가 2024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 U19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신명오는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대회 U19 남자 단체전에서 배준수(17·경기체고), 강도훈(18·경기체고)과 함께 총 4468점을 합작, 1위를 차지했다.

남자 단체전은 개인전 상위 3명의 점수를 합산해 성적을 매긴다. 한국 B팀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배준수 1503점(2위), 신명오 1486점(6위), 강도훈

1479점(7위)을 기록해 카자흐스탄(3764점)과 우즈베키스탄(3727점)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U19 남자 개인전 우승은 양우승(18·부산체고)이 거머쥐었다. 양우승은 펜싱 4위(249점), 수영 18위(271점), 장애물 9위(317점)를 기록하며 마지막 레이저런에서 전체 8번째로 출발해 역주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총 1505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U19 여자 단체전에서는 김예림(17·경기체고)-한나연(16·서울체고)-정다민(17·경기체고)이 나서 총 3872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근대5종 아시아선수권대회 U19 남자부 단체전 대표팀 강도훈(왼쪽부터), 신명오, 배준수. 대한근대5종연맹

이가영(18·대구체고)은 U19 여자 개인전에서 펜싱 2위(257점)·수영 11위(257점)·장애물 10위(271점)·레이저런 3위(572점)를 기록, 총 1357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